

## 군사력 감축에 따른 불균형의 현상황에서 비축과 효율적인 훈련만이 세력 균형의 正道

**미** 의회가 금년 9월에 F-15, F-14 전투기, Phoenix 유도탄, V-22 Osprey, AH-64 Apache 헬기와 기타 다른 장비에 대한 자금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로 체니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최근 주요전투장비 획득계획중 총 8천60억불 이상이 투입되는 1백여개의 항목에서 내년에 약 1백98억불을 삭감할 것을 고려중이다.

이와같은 장비들을 국방부가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94억불을 초과로 지출해야 하는 장비(체니 국방장관은 이 장비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할 것이다)들의 증가에 대해 워싱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연하게도 체니 국방장관은 Midgetman 유도탄, CH-53 헬기, SADARM계획, Seawolf 공격 잠수함을 위한 高價의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前述한 장비들을 판매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후자가 국방부의 중요 전략전술 소요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획들은 94억불이 추가로 지출되지 않고 추진할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는 다른 장비들이 유지될수 있도록 자취를 감출 것이다.

획득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취사선택품목에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찾을때, 국방부는 실제로 비용면에서 양쪽을 비교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전문가들은 표시하고 있다. 정치, 군사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질때 개량형 F-14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미 해군이 최초계획보다 항공모함을 적게 보유할 것이라는 것과 미국의 전투기 전방기지가 곧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F-14기의 공대공, 공대지

임무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V-22 Osprey 계획을 철회하여 다기능 공격력 보유라는 훌륭한 전투개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현명한 일인가?

수륙양용 장갑차, 강습상륙정과 V-22의 병력 수송기능 통합으로 해병이 수상/해안 침투공격시 발생하는 병력손실률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 전문가들이 나타내는 더 중요한 의문점이 있다.

그것은 국방부의 장비획득 계획자, 경리관리자, 정책결정자들이 육·해·공군의 지휘관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 직업은 못 속여

오랫동안 판사를 지낸 남자가 퇴직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리곤 처음으로 결혼식의 주례를 맡게 되었다.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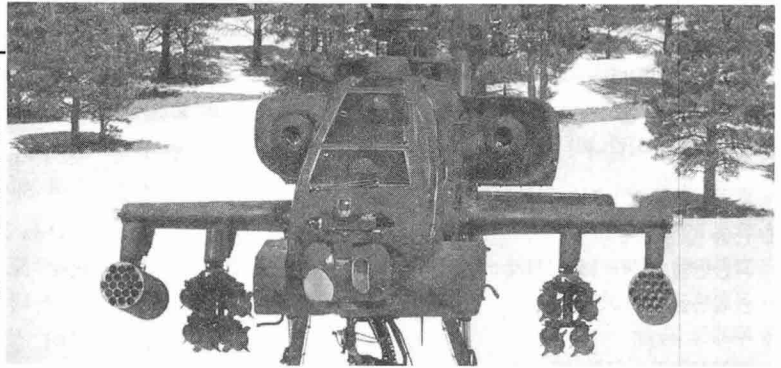
신부가 대답하자 전직 판사는 다시 신랑을 보고 물었다.

「피고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할말이 있는가?」

신랑은 잠시 신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석달만 유예기간을 주실수는 없겠습니까?』

美 의회는 금년 9월 F-15, F-14 전투기, Phoenix 유도탄, V-22 Osprey, AH-64 Apache 헬기(사진)와 다른 장비에 대한 예산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로 체니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최근 주요전투장비 획득계획 중 총 8천60억불 이상이 투입되는 1백여개의 항목에서, 약 1백98억불을 삭감할 것을 고려중이다



하급부대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찰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공격헬기계획과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Osprey와 같은 항공기 개발계획 취소는 예산의원, 전략가 및 입법자들에게는 의미있는 것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예는 미 해병 저고도 방공무기 개발계획을 예산에서 제외한 의회에서 찾을수 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이나 관계요원들은 저고도 방공무기 개발 판정에 필요한 경쟁장비의 정보나 이런 장비가 어떻게 소련의 개량형 헬기에 대해 방공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국방예산 지출에서 필요한 재정이 삭감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금년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들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과 중지해야 하는 것중 취사선택할 품목의 비교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워싱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이 또 하나 있다. 이는 현재 일관된 정책과제인 비용절감 때문에 70년대처럼 국방부가 평소보다 장비획득을 위해 비축과 훈련을 더욱 축소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는 군사력 감축으로 인해 비축과 효율적인 훈련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적절한 군사력 증강과 함께 비축과 효율적인 훈련이 세력의 균형을 이룰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2가지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최소 군사력 상태하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국방부는 전투준비태세를 위한 비축과 훈련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한 절약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예산삭감중 몇몇은 타당하지만, 전방부대의 전력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방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는 내년 예산중 2백억불을 삭감하기 위해 세계안보에 필요하며, 높은 비축률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군장비를 획득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획득가능성은 고도장비, 비축, 훈련과의 균형개념에 대한 백악관의 지원에 달려있다. 또 다른 방법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기밀정보 공표나 부패한 국방부와 계약업체간의 관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장비의 필요성을 자랑스럽고 대담하게 밝히는 방법을 진실로 모색하여 봤는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전문가나 비평가들이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결책 제시도 쉬운 것이다. 누가 책임을 지든간에 2보를 전진하기 위해 1보를 후퇴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책임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전문가와 비평가들이 그 분야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밝히는데 一助를 하였다. 사업진행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

< Miltech 89/9 >